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10 10 2017

식물은 생물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식물은 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모든 생물학 책이 식물과 동물을 함께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식물은 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과학적 성경적 의미를 알아본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질서해지고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결국 폐차되고, 시계는 정지하고, 건물도 부식된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들이 있다. 바로 식물, 동물, 사람이다.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성경에서 식물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이 완전히 적당하지는 않지만 달리 대신할 표현이 없으므로 이 단어를 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 일반 과학자들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

다는 이유로 식물, 동물, 사람을 모두 생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람이나 동식물같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것을 "목적률(teleonomy)"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식물의 엽록체에는 빛 에너지를 포획하는 목적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있다. 이 포획된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을 한다. 이 목적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짐작하기는 해도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무튼 목적률이란 동식물과 사람에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무언가를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일차적으로 이 목적률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유사성 때문에 모두 생물로 분류시키는 것이다.

한편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표현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인 셋째 날에는 등장하지 않고, 동물이 창조되는 창조 닷새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동물을 창조하실 때 "물들은 생물(living creatures)로 번성케 하라"(창 1:20)에서이다. 또한 동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being)이 된 지라"(창 2:7)와 같이 인간에게도 생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창조 다섯째 날 등장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유지된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생물의 개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세상과는 달리 성경은 단지 질서를 유지시키는 목적률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생명을 훨씬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홍수 심판 직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생명 되는 피" 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다(창 9:3-6). 즉, 생명의 특징으로 피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특징으로써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레 17:11),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레 17:14)과 같이 레위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생명은 피를 가진 동물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의 대가로 피가 있는 동물이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반면에, 식물은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률은 갖고 있지만 피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을 만족시키는 생명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물은 엄밀하게 따져서 생명(life)도 없고 죽음(death)도 없으므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식물은 창조될 때부터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food)임이 그 주된 창조 목적이다(창 1:29-30).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을 먹으며 이를 죽인다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식물은 생물이 아닌 먹거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제사 가운데 곡물은 죄사함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사의 표시인 소제(grain offering)에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동물과 식물은 여러 유사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한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그렇다. 예를 들면 똑같이 재생산되고, 유전법칙이 적용되고, DNA도 있고, 세포로 되어 있고,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유사점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동식물 모두가 같은 공기, 같은 물, 같은 땅, 같은 지구환경에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이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인 이상 그 성분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동물과 생물이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먹거리인 식물을 재생산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사람과 동물이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듯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셨다. 즉, 재생산이 이루어지되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넣으신 유전정보 안에서 재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숭아, 사과, 딸기, 오렌지 등 고유의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창조자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의 음식으로의 기능인 식물도 목적률과 함께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동식물의 차이와 그 창조 목적을 결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면 그 유사성 때문에 동식물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게 되며 결국 진화론적 사고에 빠지게 될 뿐이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보다 눈에 보이는 유사성에 훨씬 빠지기 쉬운 존재이다. 오직 창조자가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진화 역사와 성경을 함께 믿어보려는 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류하듯이 식물을 생물로 넣으려고 한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식물들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는 식의 반문이 이를 대변한다. 즉, 식물도 사람이 죄짓기 이전에 죽었을텐데 동물이 아담의 범죄 이전에 죽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슨 문제가 있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오해이다. 즉 동물과 식물이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진화론에 자신의 사고가 먼저 지배되어 이런 비성경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질시대표에서 보여주는 진화 역사는 수십억 년의 생존경쟁에 의해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까지 왔다고 말한다. 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상한 진화 과정이 우리의 역사라면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고통을 겪은 후에 또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었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동물의 피라고 해서 그렇게 값없이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사용되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실 때도 "생명 되는 피 째" 먹지 말라고 하실 만큼 동물의 피는 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에 관하여 볼 때, 인간의 경우는 그 차원이 극명하게 다르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률과 피를 갖고 있는 생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창 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다(창 1:26–27). 그러므로 성경에서 생명을 사람과 함께 사용할 때는 단순히 동물의 생명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며(시 36:9), 생명 그 자체이시다 (요 11:25; 14:6).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떠나게 되어 곧바로 죽음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이신(요 14:6) 유일한 속죄의 기준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히 9:22; 레위기 4장).

이와 같이 신구약을 통틀어 수없이 반복된 언급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그 의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혼돈에서 벗어나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제 9 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9기 ITCM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한국), 2018년 1월 4일부터 2월 7일(미국), 2월21일부터 24일까지(한국),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미국 일정은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경공부와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훈련을 통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원 역사와 복음에 대한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며, 창조과학을 도구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실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 부
2. 본인 소개서 1 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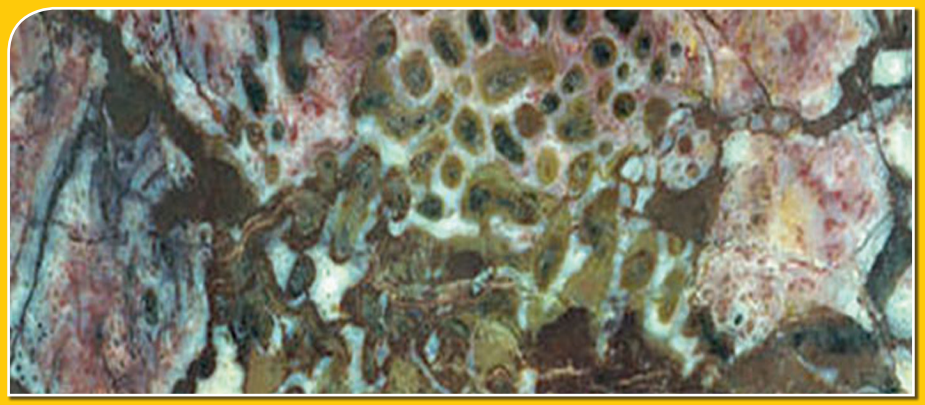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 주십시오.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휘성 remainin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단백질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를 확증한다



2017년, 과학자들은 이미 화석 뼈들에서 발견된 몇몇 놀라운 생화학 물질들에 대해 기술했다. 두 개의 새로운 발견들은 단백질 잔해의 상태에 관한 열띤 논쟁을 재점화하였는데, 그것들이 정말 유기물 잔해인가, 어떤 오염과 같은 것인가, 특이한 보존 과정의 결과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등이다. 그러면서 종전처럼, 과학자들은 간결하고, 깔끔하고, 성경적인 결론을 완전히 건너 뛰어버렸다.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한 보고는 1억 9천만 년에서 1억 9천 7백만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루펜고사우르스 용각류에서 타입 1-콜라겐의 흔적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아직도 다공성인 갈빗대 조각 내에서 단백질 흔적 같은 것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 그들은 또한 그 단백질 근처에서 적철광을 찾아냈다. 선임 저자인 로버트 리츠와의 인터뷰에서, 토론토 대학 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츠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이들 적철광 조각들은 그 공룡의 원래 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그것들은 뼈 속 혈관 내부의 단백질을 보존하는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리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대가 부여된 루펜고사우르스의 단백질에 관한 2013년의 보고에서 아무런 적철광 조각들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단백질 유전정보 연구 저널에서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메리 슈바이쳐 연구팀이 2009년 기술한 오리 주둥이 공룡에서 발견된 단백질을 확인하고 더 깊히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팀에서 이전에 발표한 훌륭한 논문은 공룡의 콜라겐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했었다. 그녀의 새로운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은 더 많은 공룡 단백질의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새로운 발견 외에도 지난 반 세기에 걸친 다른 논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들 화석들이 원래의 생화학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로버트 서비스는 《사이언스》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연부 조직 화석) 주장들은 그 부서지기 쉬운 유기 분자들이 수천만 년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고, 그녀의 표본들이 현대의 단백질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생화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의 비평의 울부짖음과 직면했다."

따라서 이 논쟁은 시간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떻게 유기 물질들이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가? 적철광 조각들이 단백질을 보존하는 것은 가능한가? 고대 단백질 전문가인 마이클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백질은 질서있게 붕괴한다. 우리는 그것의 붕괴 속도를 늘릴 수 있지만, 많이는 아니다." 그는 또한 "그 [적철광] 작용이 단백질의 분해를 수천만 년동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현대의 콜라겐이 공룡 뼈 깊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에 관한 주장들은 공허하다. 그리고 표준 연대 결정 논리는 순환적이다: 이들 공룡들은 수백만 년 된 암석층에서 나왔고, 단백질은 (최적의 보존 환경을 가정하더라도) 백만 년동안도 지속될 수 없으므로, 이들 공룡 단백질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결론은 화석 자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래된 지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화석 단백질들, 단단하게 휜 지층들, 모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들", 그리고 평편한 지층 간의 틈새 없는 경계면들 모두는 수백만 년의 연대를 논박하고 있다.

화석에서의 단백질 발견은 화석 과학으로부터 나오고, 단백질 붕괴 속도도 실험과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반면, 수백만 년의 연대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만약 그것이 단지 진화론적 추측으로부터 나왔다면, 이 모든 긴장은 해소된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는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화석을 포함한 퇴적층을 한층, 한층씩 비교적 최근에 퇴적시켰다. 이것은 모든 대홍수 퇴적암 안에서 생화학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깊은 지층에 묻힌 화석에서 원래의 단백질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Brian Thomas, M.S. / 번역: 이충현
Cite this article: Brian Thomas, M.S. 2017. Stunning Protein Fossils Confirm the Flood. Acts & Facts. 46(4).

ACT News

창조과학탐사

더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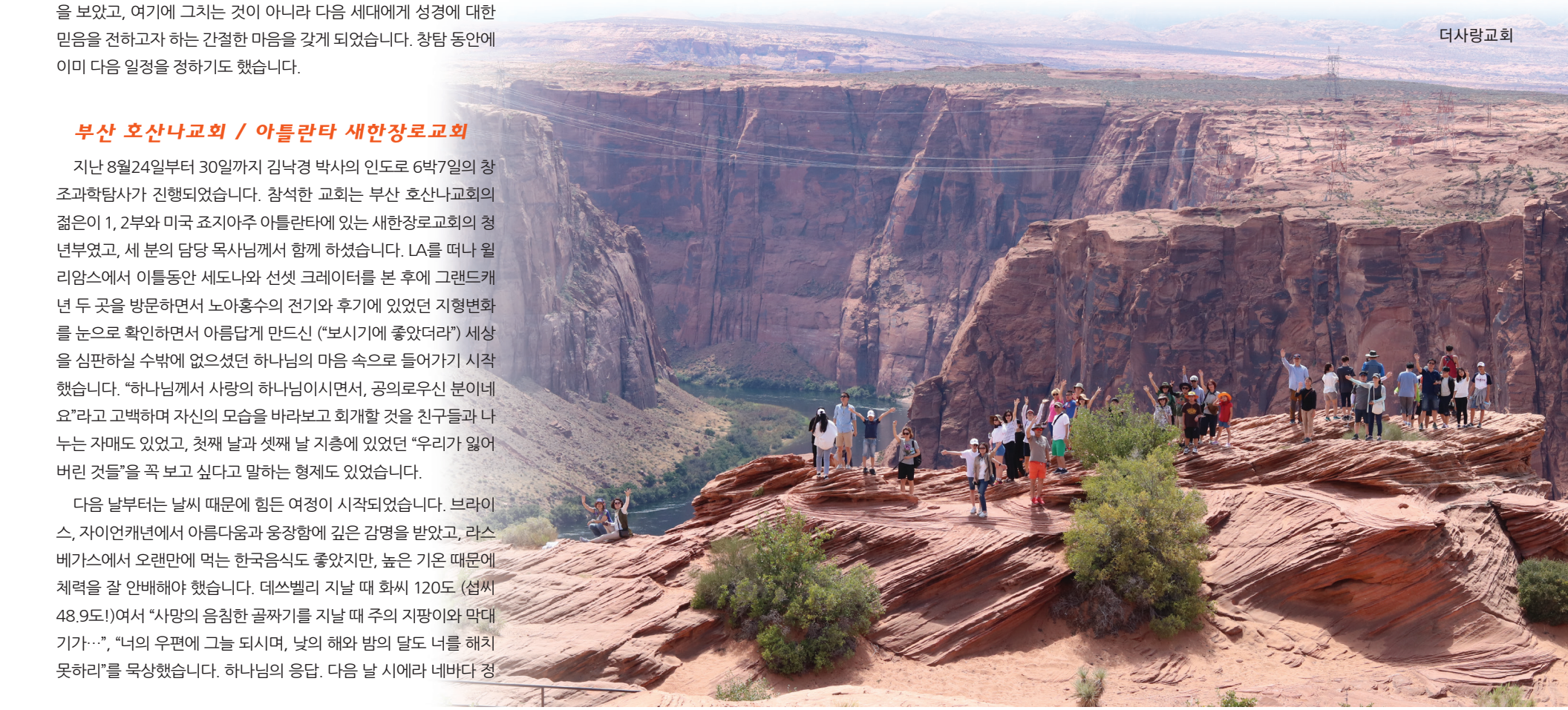
지난 8월 1-5일 더사랑교회(담임목사 이인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참석입니다. 닷새간의 창탐 동안에 참가자들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보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탐 동안에 이미 다음 일정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 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지난 8월24일부터 30일까지 김낙경 박사의 인도로 6박7일의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교회는 부산 호산나교회의 젊은이 1, 2부와 미국 죠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새한장로교회의 청년부였고, 세 분의 담당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LA를 떠나 윌리암스에서 이틀동안 세도나와 선셋 크레이터를 본 후에 그랜드캐년 두 곳을 방문하면서 노아홍수의 전기와 후기에 있었던 지형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름답게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네요”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자매도 있었고, 첫째 날과 셋째 날 지층에 있었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꼭 보고 싶다고 말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날씨 때문에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이스, 자이언캐년에서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라스베가스에서 오랜만에 먹는 한국음식도 좋았지만, 높은 기온 때문에 체력을 잘 안배해야 했습니다. 데쓰벨리 지날 때 화씨 120도 (섭씨 48.9도!)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음 날 시에라 네바다 정

부산 호산나교회



더사랑교회

상의 초지에는 하얀 눈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생 최고 기온을 경험하고, 평생 처음으로 8월말에 눈을 본다"며 감탄하던 한 형제는 6일동안 2,200장의 사진을 찍은 것도 처음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청년들은 에덴동산의 6일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과 빙하기의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고백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성경과 진화론의 대립, 성경과 유신 진화론의 대립 등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탈하게 강사와 질문과 토의하면서 대부분 명확한 답을 얻었으며, 밤이 깊도록 주제를 정해서 토의하고, 새벽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열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노휘성 강사는 지난 8월 7, 14일에 LA지역 어성경 전문강사 및 예비 강사를 대상으로 창조과학 집중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번 집중세미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창세기 처음 장들에 대한 궁금증들과 진화론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하늘소망교회(담임목사 김덕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류, 생명, 생물, 우주와 지구 등 기원에 대해 다루고, 최근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타협이론들을 다루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경이 과학과 충돌하지 않지만, 진화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성경의 역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확인하였고, 창조과학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에 엘에이 굳타임스교회(담임목사 조성)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한 '인류의기원' 강의를 인도하였습니다. 평소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세미나를 통해 명쾌한 답을 얻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조성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께도 이러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접할 기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도자와 목회자, 그리고 온 성도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동질성을 느끼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소망교회

19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19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기간: 2018년 1월 2-5일(화-금, 3박 4일)

출도착 장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출발시간: 1월 2일(화) 오전 8:00

경유지: Mojave 사막, Grand Canyon, Glen Canyon Dam, Bryce Canyon, Zion Canyon

모집 인원: 50명(버스 정원 때문에 50명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현재 유학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생(여러 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교회에서 최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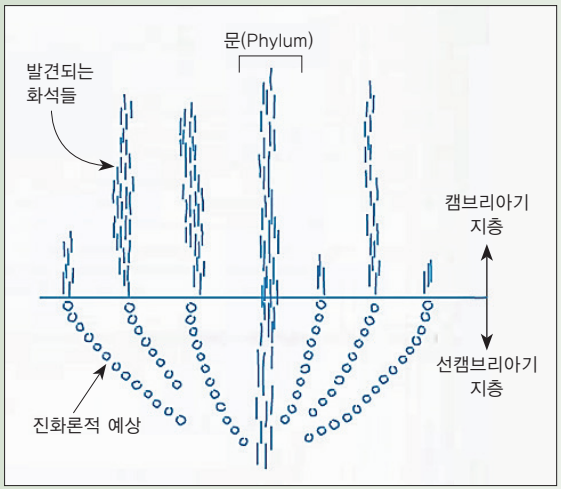
참가비: $50(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참가비와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합니다)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양식과 함께 참가비(payable to ACT)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가비가 도착하는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일찍 정원이 차기 때문에 참가비를 보내시기 전에 좌석이 남았는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 숙소는 2인 1실, 식사는 첫 날 점심부터 마지막 날 점심까지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벌써 19차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끊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진화론적 사고로 가득찬 세상에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증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주위 분들께 많이 권하여 주십시오. 문의) HisArk@gmail.com / Tel. 562-868-1697

정말로, 화석이 진화 과정을 반영하는가?



고생물학은 주로 고생대 퇴적암으로 불려지는 지층들에서 나오는 생물들부터 자세히 다룬다. 왜냐하면, 고생대 이전의 퇴적층에는 화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고생대 지층은 전 지구에 매우 광역적으로 펼쳐져 있고, 삼엽충, 조개, 산호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겉모양과 내부 구조를 연구해 생물을 분류하고, 학명을 붙인다.

이러한 분류뿐 아니라 고생물학은 생물의 진화 계통을 연구한다. 수십~수백만 종의 생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인지 그 진화적 조상-후손 관계를 밝히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의 족보를 추적해내는 것이다. 이는 단 하나의 세포라는 최고(最古)의 조상으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나오기까지 그 변화 과정이 화석에 남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진화론은 화석을 이해하는만큼 진화를 이해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화석을 통해 이해된 진화 역사는 무엇일까? 고생대 최하부층인 캠브리아기 지층이 보여주는 일면을 통해 화석에 어떤 생물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캠브리아기 지층은 그 아래 선캠브리아기로 불리는 지층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수많은 생물 화석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캠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 종류는 무려 30-40 문(phyla)에 이른다.

캠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전지구적인데, 그린란드, 시베리아, 중국, 나미비아의 모든 캠브리아기 지층에는 공통적으로 생물들이 동시에 나타난다.[1] 이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진화적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면, 즉 이들이 모두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 뻗어나온 자손들이라면, 이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수많은 생물의 흔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캠브리아기 지층 아래의 지층들에서 수많은 전이 단계를 보이는 생물의 역사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캠브리아기 아래의 지층들은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이 매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화 계통을 보여주지 않는다.

캠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많은 생물 문(phyla)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들임을 알고 있다. 물고기, 벌레들, 산호, 삼엽충, 해파리, 해면동물(sponges), 연체동물, 완족류(brachiopods) 같이 복잡한 종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것들이 보다 단순한 형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흔적이 지구 어디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오늘날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 문들의 대표들이 다 들어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곤충과 현화식물, 관다발 식물, 척추동물을 포함하고 있다. 곤충들은 알려진 모든 것의 5분의 4가 발견되는데, 진화적 조상없이 바로 나타난다.[2]

약 30억년의 시간이 매겨져 있는 선캠브리아기 지층에는 세균이라고 해석되는 것들, 그리고 녹조 화석 등이 고작이다. 진화론적 해석에 의하면, 약 15억년동안은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만 살다가, 그 다음 15억년 정도는 세포의 형태가 복잡해진 진핵세포로 이뤄진 단세포 생물만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위 캠브리아기 지층에서 폭발적으로 완벽한 모습의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조상은 없는데, 자손들은 종류대로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화석이 보여주는 생물의 역사에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이어지는 진화의 연속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화석을 통해 진화론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진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화석과 진화는 불일치한다. 선캠브리아기 지층과 캠브리아기 지층에 나타나는 화석의 극단적인 차이에 대해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는 한 진화의 처음 역사는 계속 미스테리일 것이다. 한편, 화석이 보여주는 그대로 대부분의 생물들이 갑자기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이 진화론의 틀에서가 아닌, 종류대로 창조하신 성경의 틀에 잘 부합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1] 임번삼, 창조과학원론(상), p.302
[2] Walt Brown, In the Beginning: Compelling Evidence for Creation and the Flood, 2001, pp10-11

노휘성
지구과학교육

창조과학탐사

EM 모집 창조과학탐사

7/10~13, 2017

이 여행은 성경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빌과 김선욱 박사님이 모두 답변해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Eunice Song (11th grade) <LA Sarang Church>

진화인가 창조인가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 참여한 후로, 저는 진화의 빈구멍을 보았고, 창조가 왜 진리인지 합리적인 설명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더욱 믿도록 도왔고, 저의 모든 의심을 없애버렸습니다. -Ashley (12th grade) <Good Stewards Church>

진화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창조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저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얻었고,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기원에 대해 창조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Hayeon Kim (12 grade) <Mariners Church>

단지 캐년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어서가 아니라 진화론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ichelle Kang (10th grade) <Haengbok Church>

자연에 남겨진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서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가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있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ristine Youn <Korean Hope Church>

세속 과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역사가 진리라는 사실적인 증거들을 배웠습니다. 이 여행에 오기 전보다 저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상이 저의 믿음을 흔들 때 견고하게 설 뿐 아니라 친구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도록 돕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race Youn <Korean Hope Church>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그의 존재하심과 심판과 선물에 대한 증거들을 남겨 놓으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연결되며, 진화론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Paul Kim

저는 이 여행에서 인류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삼촌에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Kathy Kim

대홍수모델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면서 격벽적 홍수 지질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의 관점에 대한 빌 선생님의 좋은 설명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Kevin Park (11th grade) <Journey Christian Fellowship Church>

이 여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채워서 집으로 가게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대중적인 진화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나의 입장에도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Paul Shin <LA Sarang Church>

이 여행은 창조와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고, 젊은 지구와 창세기 홍수같은 성경의 사건들의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매우 훌륭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믿음을 확실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David Yang <LA Sarang Church>

진화론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음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진화론에 도전하는 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또,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고 경험한 것도 좋았습니다. -Victoria Yu (10th grade) <Gospel Light Church>

성경에 대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대한 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 진짜 역사적 사건인지 궁금했었는데, 역사와 성경의 사건들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통해 나의 지식과 마음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Ana Seo (10th grade) <University Bible Fellowship>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대홍수 심판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된 사실이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많은 사실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분명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모두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 세속적 묘사들과 다른 진짜 공룡의 존재, 인간과 루시의 좁힐 수 없는 차이 등이 선명해졌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수십억 년의 타임라인을 통해 어떻게 진화론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더욱 진지하게 살아야함을 느꼈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Gina Park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저의 눈이 열렸고, 제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교와 교육 속에 있음이 축복임을 느끼며, 십대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행이 계속 열리길 소망하며, 이 창조과학투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Susan Kim

이번 여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보며, 대홍수에 대한 진짜 사실과 지구의 나이에 대해 배운 것이 놀랍습니다. 유기물 속 탄소동위원소에 대한 사실들은 나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화석에 발견되는 부드러운 조직들은 지구가 수백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여행은 분명하게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Ashton Caldwell (9th grade) <Immanuel Bible Church>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7/2018 ACT Schedule

9/25-28	창조과학탐사 (앵커리지온누리교회+오픈), 이재만
10/6-8	창조과학세미나 (은혜한인침례교회), 이재만
10/9-10	창조과학세미나 (굳타임스교회, LA), 이재만
10/12-1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23-27	창조과학탐사 (대한예수교합동 수원노회), 이재만
10/28-12/8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세미나, 이재만
11/20-22	창조과학탐사 (오렌지한인교회 EM), Bill Hoesch
12/12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26-2/24	제9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9차 유학생), 이재만
1/15-21	창조과학탐사 (예인교회), 이재만
2/19-23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2/24-27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3/1-3/31	한국 및 대만 세미나, 이재만
4/4-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